

지역 소식 통

고창소방서, 가정의 달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보

가정의 달인 5월은 가족 단위 나들이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률이 연중 가장 높은 시기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13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는 총 10만8,759건으로 연평균 3만6천여 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5월에만 1만 1,297건(10.4%)이 집중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사고 유형은 낙상·추락 사고가 전체의 43%를 차지했으며, 자전거·차량 사고 등 교통사고와 열상 사고가 뒤를 이었다. 특히 사고 장소의 절반 가까이 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해 부모와 보호자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고창소방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 내 낙상 방지, 자전거 이용 시 보호장비 착용, 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생활 속 기본 수칙을 군민들에게 꾸준히 안내하고 계절별 안전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 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청렴 의지 다짐

부안군은 13일 백산면 금관리 동진강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식물인 양미역취를 제거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물다양성의 달을 맞아 자연 생태계 보호와 더불어 공직자의 청렴 의지를 실천으로 다지는 의미를 담아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부안군청 관계자를 비롯해 전북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양미역취를 직접 뽑는 등 적극적인 제거 활동에 나섰다.

양미역취는 북미 원산의 생태계 교란식물로, 빠른 번식력으로 토종 식물을 밀어내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행사 장소인 금관리 일대는 양미역취가 대규모로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꾸준한 제거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목되어왔다.

/부안=김석진 기자

‘밀고 먹는 급식’ 만든다

정읍시,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 사업 추진

정읍시보건소가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집단급식소의 위생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소는 2025년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관리 사업을 통해 모범적인 위생 관리를 실천하는 급식소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16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집단급식소의 위생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집단급식소로 정식 등록된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병원 등 약 130개소이며 참여를 원하는 급식소는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는 신청한 급식소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는 총 32개 항목으로 △시설·환경 관리 △개인위생 관리 △공정관리 △식재료의 보관·운송 과정 △기타 집단급식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진행된다. 평가와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적으로 우수 집단급식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우수 집단급식소로 선정된 업소에는

자금심을 높일 수 있는 ‘우수 집단급식소’ 현판이 부착되며, 식중독 예방·위생 관리에 필요한 물품(업소당 최대 50만원 상당)이 부상으로 지원된다. 또한, 지정 후에도 3년간 지속적인 재평가를 실시해 우수 집단급식소의 안전 관리 수준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우수 집단급식소로 지정됐던 SK네슬리스, 샘고을요양병원, 근로복지공단 정읍어린이집, 한서요양병원은 최근 실시된 재평가 결과, 전년도 평가 점수 대비 전반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식중독 예방 등 우수 집단급식소에 걸맞은 높은 위생 관리 수준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민 4명 중 3명 “군정 만족”

고창군, 군정·소통분야 주민 만족도 조사… ‘긍정적 평가’

고창군이 민선8기 출범 3년차를 맞아 그동안 추진한 군정에 대하여 군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군정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여론조사 전문가관에서 실시했다.

군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서 군민 4명 중 3명이 만족감을 드러내며 72.1점(긍정 65.3%, 보통 23.3%, 부정 11.4%)의 높은 평점을 받았다.

전년도 같은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고창군민들은 여전히 만족스럽다’라는 평가를 내렸으며,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소통과 홍보(41.5%), 새롭고 과감한 시도, 참신한 정책과 사업(34.2%) 등을 꼽았다.

고창군 2025년 슬로건인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에 대한 호감도

를 묻는 조사에서는 만족 68.3%, 보통 22.4%, 불만족 9.3%로 나타나, 평점 74.0점으로 슬로건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고창군의 주요 사업관련, ‘고창수확명성 공고화, 지리적 표시제 등록 확정(77.7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고창신물력산업단지, 삼성전자 등 기업유치(76.6점)’, 전국최초,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 및 계절근로자 입국(74.8점) 순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수는 “군정이 군민에게 체감되는지, 군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군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특히 현장에서 군민들과 만나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독려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책임 있는 참여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자” 당부

심덕섭 고창군수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책임 있는 참여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자”며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심 군수는 13일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투표에 참여하고, 군민들 역시 소중한 한 표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주길 당부했다.

고창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방위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13일에는 군청사외벽에 ‘투표 꼭 참여, 희망의 미래를 열어갑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투표일자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전 읍·면 지정계시대 20여 곳에도 게시했다.



또한 군은 고창군 공식 SNS,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고창군 관내 14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투표는 6월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고창군 관내 2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정부양곡 안전 관리·재고조사·실태점검 돌입

정읍시가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자산인 정부관리양곡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정부양곡 보관창고와 도정공장을 대상으로 재고조사와 안전보관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부양곡 재고조사는 현재 정읍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양곡의 정확한 수량과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품질 변질 여부, 창고 시설 관리 상태

등 안전보관실태 전반을 점검해 보관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시청·읍면동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 조사반 20개를 구성해 관내 8개소의 보관창고와 도정공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러한 점검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기온이 15℃ 이상 올라가는 하절기에는 양곡 해충 발생 등 보관 위

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훈증약제를 각 보관창고에 미리 공급해 해충 예방과 품질관리에 도 사전에 대비할 예정이다.

시는 양곡의 안전하고 청결한 보관을 위해 각 창고별 필요한 훈증약제 총 630켤(1켤=100kg)을 공급하고, 약제 특성과 취급 시 주의사항, 안전한 사용 방법 등 올바른 약제 사용을 위한 현장 교육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어업인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접수

부안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간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난 23년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관내 1,108가가를 대상으로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은 130만원씩, 조건불리지역은 80만원씩 총14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직불금 신청은 소규모어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어선원은 승선한 어

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조건불리지역은 위도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소규모 어가는 지난해 해와 동일하게 어가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은 5톤미만 연안어업 허가 받은 어업인과 신고 어업인 등으로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된다.

어선원은 어선의 소유자와 전년도 기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사회적 약자 반려식물 보급 사업 추진

정읍시가 사회적 약자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특별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총사업비 900만 원을 투입, 원예치유농업연구회와 손잡고 2025년 사회적약자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2일부터 북면 원당마을 등 14개 마을 경로당에서 총 28회에 걸쳐 진행되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총 312명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반려식물 가꾸기와 같은 다양한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특히 식물을 직접 돌보는



과정을 통해 일상적인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목표 설정과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향기로운 제라늄을 활용해 화분에 직접 심어보는 등 다양한 치유농업 활동을 실습하며, 식물의 다채로운 색이나 향을 통해 긍정적인 감성 변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